수술 지연·퇴원 행렬…의료대란 첫날 대학병원 아수라장

광주·전남 전공의 70% 사직…조기퇴원 통보 환자들 고성 지르며 울분

의료공백 대체 투입 대책 간호사들도 난감…의대생들은 동맹휴학 시작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파업이 현실화된 20일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에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전남 대학병원이 대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을 증원하기로 한 것에 반발해 광주·전남 대학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집단사직서를 제출하고 무단결근을 하는데 이어 광주·전남 의과대학 학생들까지 동맹 휴학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대란이 현실화 됨에 따라 병원과 지자체는 각종 비상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진료보조인력인 PA 간호사 투입 등으로 의료공백을 메운다는 대책에 지역 간호사들도 난감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 의료대란 첫날 환자들은 전전긍긍 = 집단사직서를 제출한 광주·전남 전공의 들이 무단 결근을 한 첫날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의료대란의 움직임이 발생했다.

예정된 수술이 지연되고 일부 외래 진료가 미뤄지거나 진료 자체가 조정되기도 했다. 타 병원으로 이송되는 입원 환자들도 속출했다.

20일 전남대병원에서 예정된 전신마취 수술은 25건 이었지만, 일과시간내 9건이 진행됐고 2건이 심야까지 이어졌다. 11건의 수술이 지연된 것이다.

조선대병원 안과는 일부 검사에서 전공의 부족으로 지연됐으며 원무과에는 외래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도 파업으로 인해 진료가 단축됐다.

이날 오후 4시께 전남대병원 원무과 앞에서는 한 환자 보호자는 "어제 수술했는데 오늘 퇴원하라고 하라는 게 말이 되냐"며 "대학병원에서 사람 생명 갖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한 것 아니냐"고 울분을 터트렸다.

조선대병원 혈액내과에 입원한 박종용(64)씨는 "입원해 15회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했지만 오늘 퇴원하라고 해서 당황스럽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조선대병원을 찾은 최덕진(87)씨는 "아내 치매 치료를 위해 오전 일찍 병원에 왔는데도 오후 2시가 다 되도록 원무과에 수납조차 못하고 있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 광주·전남 의료계 비상대책 가동 = 전남대병원은 20명으로 구성된 비상진료대책위원회(위원장 진료부원장) 가동에 들어갔다.

당장 외래, 입원, 응급실, 중환자실 등 진료는 최대한 현상 유지할 방침이다. 전공의 공백은 교수, 펠로우, PA간호사 등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수술은 응급수술 및 중증도가 높은 수술 위주 운영하되 기타 수술은 진료과별 자체적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조선대병원도 경증환자와 타 병원에서 진료·치료 가능한 환자들을 우선 협력병원으로 전원시켜 의료공백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별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야간·공휴일로 나눠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상황실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종료될 때까지 이어진다. 응급실이 운영되는 병원에서는 24시간 비상 진료를 실시한다. 광주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총 21곳이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2곳을 제외하면 지역 응급의료센터(서구 서광병원, 남구 광주기독병원, 광산구 첨단종합병원·ks병원)4곳, 지역 응급의료기관 15곳이 운영중이다.

◇보조 인력인 간호사들도 난감=전공의 집단행동을 바라보는 간호사들의 눈길도 곱지 않다.

당장 부족한 전공의의 인력을 메우기 위해 PA간호사를 배치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간호사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이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의사업무를 간호사가 대신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책임은 결국 간호사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다.

결국 간호사들에게 업무량이 늘어 의료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져 환자 생명이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정새롬 조선대병원 보건의료노조 지부장은 "당장 오늘은 교수님들이 배치돼 있고 간호사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지만 장기화가 되면 결국 고통은 환자에게 돌아갈수 밖에 없다"면서 "의사들과 정부는 서로 힘겨루기만 할 게 아니고 머리를 맞대 합의점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맹휴학…학사일정 차질 =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학생들은 20일 일제히 동맹휴학을 시작했다.

전남대에 따르면 재학생 731명 중 282명이 이날(4시 기준)으로 휴학계를 제출했다. 학생들이 수업에 무더기 결석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는 학생들의 수업 불참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개강을 2주 가량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선대 의대에서는 신입생을 제외한 625명 재학생이 학생대표를 통해 교학팀에 휴학계를 제출했다. 재학생 90% 이상 제출했다고 조선대는 밝혔다. 조선대는 애초 19일 개강이었으나 오는 3월4일로 의대 개강 일자를 연기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수업거부 사태 등이 예견돼 의대의 개강일자를 연기해 학사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지적장애인 기초생활비 편취 후견인 가족 검거

7년간 4200만원 가로채

7년간 장애인 여성의 기초생활비를 빼돌린 50대 후견인 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장성경찰은 50대 여성 A씨에 대해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1급 지적 장애인 B씨의 명의로 발급된 통장을 관리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4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머니가 장애인 B씨의 후견인으로 80대의 고령이라는 점을 악용해 어머니 몰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가 문자를 해독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통장 등을 관리해오다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광주에 살고 있고 B씨는 홀로 장성에 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장애인의 예금과 보험 관리, 자산 매각 등을 대리하게 되고, 후견인 동의가 있으면 장애인의 경제 활동을 취소할 수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계비용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 일부는 B씨를 위해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여수서 승용차 전신주 충돌 교통사고 운전자·어머니 숨져

여수에서 교통사고로 모자가 함께 숨졌다.

20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10분께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의 편도 1차로에서 A(25)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옆에 설치된 전신주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와 뒷좌석에 동승한 어머니 B(55)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좁고 어두운 길에서 운전하다 회전 구간에서 핸들을 미처 돌리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는 여수에서 직장을 다니는 A씨를 만나러 여수에 들렀다가 순천 자택으로 복귀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A씨는 음주, 무면허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가족 및 CCTV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347억 임금·퇴직금 체불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어"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300억원대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위니아전자지회(노조)는 박 회장 구속에 대해서는 '당연한 결과'라며 대유 그룹의 책임 있는 해결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9일 오후 늦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의 구속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박 회장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니아전자 및 위니아 근로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에 있는 대유위니아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 측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실질적 경영책임자인 박 회장의 무리한 사업확장, 부동산 투기 등 방만한 회사 경영으로 광주 공장의 노동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면서 "그동한 책임회피로 일관해 온 태도를 보면 이번 구속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위니아 전자에 납품하는 광주지역 133개 협력업체의 피해액도 수백억원에 달한다"면서 "기업을 청산위기로 내몬 박 회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약속했던 체불 임금 변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